

分析心理學과 自我心理學이 개별사회사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小考

申 光 燮*

- I. 서 론
- II. 프로이드 성격이론의 기본적 가정
 - 1. 역동적 차원
 - 2. 유전적 차원
 - 3. 지형학적 차원
 - 4. 자아심리학과 구조적 차원
- III. 프로이드의 정신요법: 정신분석
- IV. 분석심리학 및 자아심리학 이론의 개별사회사업 실천적 적용
- V. 평가 및 결론
- 5. 경제적 차원

I. 서 론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은 과학에 기반을 둔 일종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과학 분야로부터 여러 개념들과 이론적 구조들이 개별사회사업 이론과 실무에 적용되어져 왔는데, 역사적으로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과 自我心理學(ego psychology)의 성격이론은 다른 이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별사회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오늘날 여러가지 성격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프로이드의 이론을 살펴보지 않고는 현대의 성격이론을 적절히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의 이론을 전적으로 인정하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든간에 프로이드가 현대문명에 매우 커다란 知的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상 전인류문명에 있어서 프로이드 이론만큼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영향을 미친 이론은 거의 없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로이드의 강한 영향력이 개별사회사업에도 크게 발휘되어 왔다는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개별사회사업가들이 프로이드의 개별사회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그것의 제한성도 지적하고 있다. 즉, 인간이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시적 측면에서만 인간의 문제를 취급하려고 할 경우 인간-상황적(person-in-situation)전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특히 자아심리학의 성격이론에서 주장되고 있는바, 오늘날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에 못지않은

* 社會科學大學 社會事業學科 專任講師

커다란 영향을 개별사회사업 이론과 실무에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및 자아심리학의 주요가정과 개념 등을 재조명해 보고, 그것들이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II. 프로이드 성격이론의 기본적 가정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에 있어서 몇가지 조작적 개념들(operational concepts)은 마치 정신의 법칙(law of the mind)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心理的 決定論 혹은 因果律(psychic determination ; causality), 그리고 의식이란 심리과정의 일상적인 속성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예외적인 속성일 뿐이라는 주장 등이 프로이드(Freud, S')의 성격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매우 근본적 가설들이다.¹⁾ 첫번째 가설은 인간의 정신작용에 있어서 임의적으로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우란 없고, 각 심리적 “事態”(event)는 선행된 사태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항상 因果的인 상호 연관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가설은 무의식적 정신과정이란 비정상적인 정신기능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록 위와같은 두가지 가설들이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 가설로서 제시되고 있지만, 기타 두가지의 다른 가설들—게슈탈트(gestalt)적 가설, 유기체적 가설—도 정신분석 성격이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게슈탈트적 가설과 유기체적 가설은 위에서 언급된 두가지 가설들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닌 가설들이다. 게슈탈트적 가설에 의하면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들이란 한 행동의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지 각기 다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동은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유기체적 가설에 의하면 어떠한 인간 행동도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는 이해되어질 수 없다고 한다. 즉 모든 행동은 성격으로부터 기인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격의 특성이 된다는 것이다.²⁾ 위에서 언급된 기본적 가설들이 정신분석 성격이론의 뼈대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가설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정신분석 성격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의 성격이론에서 인간의 성격을 각각 독특하면서도 상호 관계성이 있는 다섯가지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역동적(dynamic)관점, 지형학적(topographic)관점, 구조적(structural)관점, 경제적(economic)관점, 유전적(genetic)관점. 이러한 다섯가지 관점들

1) Charles Brenner, *An 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55), pp. 1-15.

2) David Rapaport, "The structure of Psychoanalytic theory: A systematizing Attempt," *In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Sigmund Koch (ed.), Vol. 3. (New York: McGraw Hill, 1959), p. 86.

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똑같은 정신현상을 단지 각각 다른 프리즘을 통하여 관찰하는 접근 방법에 불과하다. 또한 정신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가지 관점이 다른 관점들 보다 더 유용하다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이들 다섯가지 관점들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체적 성격은 다섯가지의 프리즘을 통하여 동시에 관찰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정신분석 성격이론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1. 역동적 차원(The Dynamic Dimension)

역동적 차원은 “성격기능(personality functioning)의 궁극적이며 근본적인 역동성에 관한” 것이다.³⁾ 프로이드는 생리학적, 유전적 근원에서 본능 혹은 욕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였는데, 인간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충동(drive)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긴장은 충동 혹은 리비도(libido)라 불리는 에너지에 의해 기인된다고 생각한다. 충동에 의한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련의 전개과정—긴장 혹은 욕구, 운동활동, 긴장해소 혹은 만족—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프로이드는 쾌락의 원리(pleasure principle)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19세기 과학의 결정론적이고 실증론적인 과학정신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프로이드는 인간 유기체를 복잡한 에너지 체계로 생각했고 유기체는 음식에서 그 에너지를 얻어 순환, 호흡, 근육운동, 지각, 사고 및 기억과 같은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소모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했다. 프로이드는 호흡이나 순환을 위한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가 사고와 기억을 위한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와 다른것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결국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이 강력히 주장했듯이 에너지는 그가 행하는 일과 관련해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그 작용이 사고와 같은 심리적 활동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런 형태의 에너지는 精神 에너지(psychic energy)라고 불러야 한다고 프로이드는 생각했다.⁴⁾

이와같이 19세기의 생리학이나 물리학 개념에 영향을 받아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이 에너지 보존법칙(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에 따라 단일 에너지에 의해서 활성화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될 수 있으나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신에너지는 생리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또 반대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자연법칙을 받아 들여서 이를 심리학적 개념으로 응용하였으며, 정신 에너지의 근본은 신경생리학적 흥분상태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각 개인이 정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며 인간

3) Francis W. Gramlich, “On the Structure of Psychoanalysis,” In *Psychoanalysis, Scientific Method, and Philosophy*, Sidney Hook (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9), p. 298.

4) Calvin S. Hall Gardner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8), p. 39.

활동의 목표는 불유쾌한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생긴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하였다.⁵⁾

프로이드는 이렇듯 인간의 동기는 신체조직요구(body's tissue needs)에 의해서 야기되는 에너지를 기초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조직요구로부터 나온 정신에너지의 총량은 이 요구에 의해서 생긴 흥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신활동에 쓰여진다고 믿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러한 신체적 흥분이 소망(wish)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본능”(instinct)이 된다. 따라서 본능은 선천적인 신체적 흥분상태를 말하고 이는 밖으로 표현되고 긴장 감소를 추구한다.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본능은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우회해서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가장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인 긴장의 충동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즉 그들의 행동은 다만 이러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⁶⁾ 이렇듯 본능은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⁷⁾

그런데 모든 본능들은, 프로이드에 의하면, 네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원천(source), 목적(object), 대상(object), 원동력(impetus)이다. 본능의 “원천”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 조건에서 생기는 욕구를 말한다(예 : 배고픔, 성적흥분, 공격성 등). “대상”이란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환경내의 사람이나 사물 또는 개체의 신체 내부에 있는것 등을 의미한다(예 : 음식물등). 목적은 요구에 의해서 생긴 흥분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원동력”이란 본능을 만족시키거나 성취시킬때 사용되는 에너지, 힘, 그리고 압력의 양이다. 그런데 배고픔, 성적요구, 혹은 공격성 등은 각 개인마다 양적으로 다르고 같은 개인이라도 시간에 따라 다르다.

본능적 에너지와 대상선택을 통해 그것이 표현되는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이 “전위”(displacement)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행동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고 긴장이 감소된다. “전위”는 본능이 추구하는 본래의 대상선택이 불가능할때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 본능이 전위되고 원래의 것과 다른 목표 대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에너지가 방출된다.⁸⁾

프로이드는 자신의 본능이론(instinct theory)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본능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삶의 본능은 생동적인 삶을 가능케 해주고 종족번식을 책임지는 각종의 힘을 포함한다. 배고픔, 갈증, 성본능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삶의 본능에 있어서 프로이드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것은 성본능이었다.

성본능은 개체의 정신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프로이드는 이것이 성격발달

5) Larry A. Hjelle and Daniel J. Ziegler, *Personality Theories*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1981), p. 36.

6) *Ibid*, p. 36.

7) Sigmund Freud,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Standard Edition, Vol. 23, p. 148.

8) Hjelle & Ziegler, *Op. cit.*, p. 38.

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삶의 본능이라고 간주했다. 성본능에 내재하는 에너지 힘을 리비도(libido; 라틴어의 “소망” “욕구”에서 유래함), 또는 리비도적(libidinal)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대체로 생존본능의 힘을 일컫는 것이 되었다. 리비도는 순전히 성적 행동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정신에너지의 일부이다.⁹⁾ 그런데 프로이드가 이해한 성적본능의 개념은 成人의 性的 활동에 국한되기 보다는 배고픔과 같은 모든 생존적 욕구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두번째 범주인 죽음의 본능은 잔인성, 공격, 자살 그리고 살인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죽음의 본능이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생존본능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그것은 생물학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 즉 모든 에너지는 조화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열역학적인 법칙을 갖는다는 이론을 가지고 죽음의 본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죽음의 본능에 관해서 프로이드는 삶의 본능만큼 이론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생존본능인 리비도적 에너지와는 달리 죽음의 본능 에너지 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 프로이드의 죽음의 본능에 관한 가정은 Fechner 에 의해 주장된 恒常性原理(constancy principle)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원리는 모든 생활과정이 無機的 세계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프로이드가 죽음의 본능에서 주장하려고 하였던 점은 모든 유기체는 그가 생성되어나온 즉 무생물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충동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은 전부 죽으려고 하는 무의식적 소망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공격적 충동(aggressive drive)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본능의 주요한 부수본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공격적 충동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타고난 충동에너지, 즉 건설적 혹은 파괴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적 충동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비도적 충동처럼 이론적으로 깊이있게 연구되어지지 않았으며, 프로이드는 공격적 충동에 따른 에너지에 “libido”와 같은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한편 自我心理學者들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그리고 그 부수본능들은 함께 융합되어 상호 중화(neutralization)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배고픔을 충족시키는데는 두개의 본능이 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음식물에 접근하여, 음식물을 씹어 삼키어 섭취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공격성은 반드시 폭력과 파괴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자아심리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9) Ibid, p. 37.

10) Hall & Lindzey, Op. cit., p. 43.

역동적 차원에 있어서 프로이드는 또 다른 두가지 주요한 개념들—固着(fixation)과 附着(cathexis)—을 소개하고 있다. 고착은 퇴행(regression)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프로이드 학파는 퇴행과 고착이 상호 보충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퇴행의 가능성은 주로 고착의 강도에 좌우된다. 고착은 어떤 발달단계에 있었던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8세의 어린이가 계속해서 손가락을 물어 뜯는것은 구강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에너지는 그 초기 발달단계에 적합한 활동에 과투자된다. “부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물에 투자되는 정신에너지 혹은 리비도의 양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정신분석 이론에 있어서 모든 행동과정은 첫째, 사물에 대한 에너지의 부착(cathexis), 둘째, 본능 만족을 방해하는 반부착(anticathexis)이라는 두가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물부착(object cathexis)의 예로 타인, 일, 그리고 이상 등에 투자된 정신적 애착을 들 수 있다. 반면 반부착(anticathexis)은 즉각적인 본능적 욕구의 만족을 방해하는 내적, 외적 장애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능표현과 그 저지, 즉 부착과 반부착 사이의 상호 관계가 바로 정신분석학 동기체제의 보루를 이룬다.¹¹⁾

2. 유전적 차원(The Genetic Dimension)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에 있어서 유전학적인 접근방법은 프로이드에 의해 직접 연구되어져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유전학적 차원은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네가지 차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전학적 차원에서는 한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그 이후의 발달단계(혹은 경험)를 논의하고 있으며,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의 성격형태란 “과거의 경험과 현재적 상황으로부터의 압력들에 의해 형성된 체질적 소질의 기능(function of constitutional predisposition)이다”라고 가정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은 가설은 모든 행위란 보충적(complementary), 계열적(sequential), 유전적(gentic) 연속의 일부이며, 물론 현재성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행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유전적 근원과 과거 내력을 고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유아는 출생이후 5~6세까지 역동적으로 각각 상이한 네가지 보편적 심리성욕 발달단계, 즉 口腔期, 肛門期, 男根期, 生殖期 등을 거쳐가는데 이 초기 기간이 어린이의 차후 성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가정하고 있다. 潜在期는 정상적으로 6~7세와 사춘기 초반 사이에 나타나며 이 단계는 발달의 일반적 모형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단계는 아니라고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다. 각각의 발달 단계는 신체

11) Hjelle & Ziegler, Op. cit., p. 38.

12) Rapaport, Op. cit, p. 87.

의 특정 부위에 대한 반응양식에 따라 설명되어지고 있다.

유아가 출생한 이후 약 1년간 지속되는 첫 단계인 口腔期(oral stage)에서는 입이 역동적 행동의 주요 부위이다. 구강기 다음에는 肛門期(anal stage)라고 불리우는 추구와 배척이 배설기능을 中心으로 발달되는 시기가 온다. 이 단계가 두째 해까지 계속되고 다음에 性器가 중요한 성감대가 되는 男根期(phallic stage)가 된다. 구강기, 항문기 그리고 남근기등 세 단계를 前性期라고 부른다.

그 다음 유아는 역동적으로 말해서 소위 高요한 때라고 하는 약간 장기의 잠재기로 들어간다. 이 시기동안 충동은 억압상태로 들어가기 쉽다. 사춘기에서의 역동의 부활은 前性期の 충동을 다시 작용시킨다. 만약 이것들이 자아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제거되거나 승화된다면 그는 성숙의 마지막 단계인 生殖期(genital stage)로 들어가게 된다.

구강기때에는 입이 유아의 영양섭취와 생존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신체기관이 된다. 또한 음식물 섭취는 유아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갖는 첫번째 경험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단계는 유아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심리적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유아의 신체적 욕구가 비록 충분히 충족되었다하더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조사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¹³⁾

구강기는 離乳와 함께 끝나며, 프로이드는 거의 모든 유아가 어머니 젖가슴을 떠나고 그에 따르는 즐거움을 포기할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이 어려움이 클수록 더욱 많은 리비도가 구강기에 집중되며 다음 단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리비도가 부족하게된다.

항문기 단계(2~3세 사이)에서는 리비도 에너지 촛점이 구강에서 항문기로 옮겨간다. 이 단계에서 유아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시작되는데 유아는 생후 처음으로 그의 본능적 충동이 외부로부터 통제받는 경험을 하게된다. 어머니의 특정한 배변 훈련 방법, 그리고 어머니의 배변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이 훈련의 결과는 유아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프로이드는 주장하였다.

남근기 단계(4~5세 사이)에서는 아동별 리비도적 관심이 새로운 성감대인 생식기로 옮겨간다. 성적인 감정과 공격적인 감정이 성기의 기능과 더불어 중시된다. 남근기의 두드러진 갈등은 프로이드가 명명한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렉트라 콤플렉스 : electra complex)이다. 프로이드는 외디푸스 콤플렉스에서의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개념을 그의 발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간단히 설

13) John Bowlby,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World Health Org., 1952); M. Leitch and S.K. Escalona, "The Reaction of Infants to Stress: A Report on Clinical Findings" *I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s. III-IV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49), pp. 121-140; Bela Mithelman, "Motility in Infants, Children and Adults: Patterning and Psychodynamics" *I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 IX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4), pp. 142-177.

명하면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異性인 부모에 대한 사랑과 同性인 부모에 대한 적대시라 할 수 있다. 외디푸스 갈등은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이야기되며 또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프로이드의 학설에 대해 많은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이드에 의하면, 네 살부터 다섯 살까지의 아동의 행동은 대부분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작용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비록 다섯 살 이후에 억압된다 하더라도 일생을 통해서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로이드는 미해결된 외디푸스 콤플렉스 문제는 나중에 신경증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성적 무기력과 여성의 불감증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前性期에 해당되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를 지난 후 6~7세부터 青年前期까지 계속되는 역동적으로 고요한 잠재기(latency period)로 들어간다. 이 시기에 리비도는 승화되어 無性的 활동인 지적 관심, 운동 그리고 친구간의 우정으로 전환된다. 프로이드는 이상하게도 이 잠재기에서 일어나는 발달과정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았다. 잠재기를 지나 사춘기에 와서는 생물학적 충동의 힘과 양이 다시 재발되어 前性期の 충동이 다시 작용을 한다.

생식기단계(genital stage)에서는 사춘기의 발달과 함께 이성에 대한 성적 그리고 공격적 충동이 다시 나타나지만, 前性期때의 특징인 自愛나 자기도취가 어느 정도 본격적인 대상선택으로 전환된다. 타인을 단지 이기적이거나 자애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愛他的인 동기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성적매력, 사회화, 집단활동, 직업계획 그리고 결혼과 가족 부양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생각이 이 때부터 시작된다. 사춘기가 거의 끝날 무렵 이러한 사회화된 애타적 추구는 일상적인 감정의 전이, 승화, 동일시와 같은 형태로 크게 안정된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애적 아동이 현실적인 사회화된 성인으로 변천해 나가게 된다. 프로이드의 유전학적 접근방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 중의 하나는 前性期기간의 관심과 욕구가 사춘기에 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융합되고 통합된다고 하는 점이다.

프로이드는 성격의 발달을 비록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 갈때 어떤 명확한 단절이나 갑작스러운 변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성격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때는 이 네 단계가 모두 공헌하는 것이다.

유전적 접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퇴행”(regression)이라는 개념이다. “고착”이라는 개념은 심리성욕 발달의 어떤 초기 단계에 묶여서 성숙을 위한 정상적인 발달이 정지되고 동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퇴행”이라는 개념은 기능상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도중 자신의 적응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 육체적인 긴장을 경험할 경우 심리성욕 발달의 초기 단계인 유아행동 유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퇴행은 사실 “고착”의 한 특별한 예이다. 프로이드 학파는 퇴행과 고착이 서로 보충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퇴행의 가능성은 주로 고착의 강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3. 지형학적 차원 (The Topographic Dimension)

지형학적 차원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성격을 해부하려는, 다시 말해서 의식 (consciousness), 전의식 (preconsciousness), 무의식 (unconsciousness) 등의 여러 층과 그것들의 과정을 고찰해 봄으로써 성격 구조를 설명해 보고자 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의식”이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포함한다. 프로이드는 정신 생활의 극히 일부만이 (사고, 지각, 느낌, 기억등) 의식의 범위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전의식”이란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의식되지 않으나 조금만 노력하면 곧 의식될 수 있는 경험을 말한다. 프로이드가 생각한 전의식은 마음 속에서 무의식과 의식 영역을 연결해 주는 데, 예컨대 어떤 치료 기법에 의해서 무의식 내용이 전의식으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의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 이론에 있어서 매우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의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인간행동 이해에 있어서 무의식 과정의 중요함을 최초로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미 18세기와 19세기의 많은 철학자들이 무의식 경험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자들과는 달리 프로이드는 무의식 생활이란 개념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무의식이란 가설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시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는 우리의 의식 범위 밖에 있는 충동과 욕구가 인간 행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고 굳게 믿었다. 전의식적 사고 형태와는 달리 무의식은 전혀 인식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주로 결정한다.

무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서 “억압”(repress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억압이란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험스럽다고 경험되어지는 관념, 기억, 감정 등을 의식 영역으로부터 밀어내버리려는 무의식적 방어기제를 뜻한다. 억압은 정교한 방어기제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불안을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억압을 일차적 자아 방어로 간주했다. 이와같이 “무의식”과 “억압”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 이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관련하여 사고과정을 두 가지—일차적 사고과정(primary thinking process)과 이차적 사고과정(secondary thinking process)—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차적 사고과정은 정신 활동의 가장 원시적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꿈이나 최면 상태에서 나타난다. 일차적 사고과정에서는 시간 감각의 부재, 전위, 왜곡 현상 등이 특징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차적 사고과정은 원시적 형태가 아닌 현실적인 사고과정을 말한다. 논리적, 의식적인

인식과정, 평가, 추리 등이 이차적 사고과정에 포함된다. 일차적 사고과정은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를 따르지만, 이차적 사고과정은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를 따른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생활은 거의 의식과 무의식의 교착(mixture), 즉 일차적 사고과정과 이차적 사고과정의 혼합에 의해서 표출되어진다.

4. 자아 심리학과 구조적 차원 (Ego Psychology and the Structural Dimension)

유전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성격을 역사적, 발달적 견지에서 從的으로 탐구하며, 지형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수평적 층들을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비해, 구조적 접근 방법은 수직 횡단적 측면에서 성격을 파악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이드의 초기 성격구조 이론은 지형학적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나 1920년대에 프로이드는 정신생활의 개념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성격구조에 세 개의 기본적 구조, 즉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go)를 제시하였다. 프로이드의 갈등이론(theory of conflict)은 성격의 위와 같은 세 가지 기본적 구조들의 상호 작용을 서술한 것이다. 성격의 각 구조는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독립적이고 분리적인 실체라기 보다는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이러한 구분이 성격의 어떤 구체적인 “구조”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가설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드(id)는 정신의 가장 원시적 부분이며, 심리, 생리적 원천이며, 제반 충동의 저장소인 동시에 전적으로 무의식의 상태이며, 단순히 본능적인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와같이 이드(id)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억압을 무시한다. 프로이드는 이드(id)란 출생시에 이미 완전한 심리적 기구(psychic apparatus)로 구성되어 있음이 자명하며 자아와 초자아는 이드(id)라는 無形의 저수지에서 서서히 분리되어 결국 명확한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드(id)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며 오직 자아의 기능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자아(ego)는 경험과 이성으로부터 발달한다. 프로이드는 자아의 기능이란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를 따르면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적당한 대상이나 환경조건이 성숙될 수 있을때까지 본능적 만족을 지연시켜 개체의 안정을 보전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견해에 의하면 자아(ego)란 성격의 집행관적, 중재적 역할을 하며 또한 “세상의 소망”(이드가 있는 곳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이기는 하지만¹⁴⁾ 그 자체로서는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드(id)와 초자아(super ego)가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借用할 수 있을 뿐이다. 자아는 이 차용된 에너지를 먼로(Munroe, R.)가 언급한 “속임수”(tricks)¹⁵⁾나 안나 프로이드

14)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Standard Edition, Vol. 18, p. 112.

15) Ruth Munroe, *Schools of Psychoanalytic Thought* (New York: Holt, 1955), p. 89.

(Freud, A.)가 언급한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¹⁶⁾를 통하여 자아에게 유리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잘 알려진 방어기제들 가운데는 억압(repression), 투사(projection), 승화(sublim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퇴행(regression), 반응형성(reaction formation) 등이 있지만 그 종류는 점차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이드의 死後 정신 분석이론에 있어서 가장 놀랄만한 발전은 자아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자아이론의 출현에 있다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자아를 숭성격의 통괄자로서 명명하기는 했지만 이드(id)와 초자아(super ego)의 도움에 의해서만 그 기능이 가능한 “무기력한 중재자”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新프로이드 학파의 자아심리학자들, 예를 들어 하트만(Hartmann, H.), 크리스(Kris, E.), 루벤스타인(Lowenstein, R.), 라파포트(Rapaport, D.) 등은 대조적으로 전체 성격에 있어서 자아의 역할을 높이면서 자아의 자율성이란 개념을 高擡시켰다. 기본적으로 프로이드는 자아의 기능을 인간 유기체의 생리적 결정 요소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하트만 등의 자아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자아의 능력과 기능은 비록 이드(id)의 충돌과 초자아(super ego)로부터의 압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탈갈등적(conflict-free)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트만은 그의 주요 저서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에서 프로이드의 입장과 같이 자아(ego)가 갈등의 결과로 인하여 성장한다는 점을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이 자아발달의 근원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자아기능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갈등과 관련이 있는 기능이며 또 하나는 갈등과 관련성이 없는 기능으로서 지각, 사고, 기억, 언어, 학습 과정 등을 그 예로서 들었다. 이러한 갈등과 관계가 없는 자아기능을 설명하면서 그는 소위 “탈갈등적 자아영역”(conflict-free ego spher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그 영역이란 어떤 특정 시기에 그 효력을 정신적 갈등 테두리 밖에서 발휘하는 기능들의 종합체(ensemble)를 의미한다.¹⁷⁾

이와같이 하트만은 자아란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타고 났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율적 자아기능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즉 출생 초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차적 자율 자아기능(primary autonomous ego function)과 그 기능 변화의 결과에 따라 성숙해지는 “이차적 자율 자아기능”(secondary autonomous ego function)으로 구분하였다. 그 예로, 아동은 자기 자신의 일차적 자율 자아기능을 활용하므로써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며, 그와 같은 처리 능력을 터득함에 따라 이차적 자율 성격을 띠는 행동 형태가 발달하게 된다. 그런 형식으로 형성된 행동은 그 특정 행동이 있었던 초기

16) Anna Freud,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London: Hogarth Press, 1937)

17) Heinz Hartmann,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8).

시기를 지나도 지속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한 습성은 청결을 위한 훈련 경험과 훈련 시기를 경과한 이후에도 지속되어 하나의 행동 형태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이다. 하트만을 이것을 “中立化”(neutralization)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중립화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 에너지가 본능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를 말한다. 하트만은 자아(ego)에게는 충동적 에너지를 중립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충동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세계에서 적응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자아의 자율성”이라는 개념 이외에도 자아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의 견해와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심리학자들은 內在的인 정신적 요소들이 성격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황적(환경적) 요소들 또한 자아의 요구, 역할, 적응적 형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성격 구조에 관한 지식을 사회적 현실과의 상호 관계성에 연결시켜보려고 시도하였다. 하트만은 “사회적 순응”(social complia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인간 유기체와 환경간에 상호 밀접한 관계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퇴행(regression)이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트만은 이와같은 점을 “Regression in the service of ego”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셋째, 자아 방어기제(ego defense mechanism)란 성격에 있어서 항상 병리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들은 성격 형성에 있어서 건전한 목적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초자아(super ego)는 성격의 기능적 하위체계중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발달되는 부분으로서 사회 규범과 행동 기준이 내면화한 형태를 나타낸다. 프로이드는 초자아의 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되지만, 그 발달을 위한 자극은 3~6세 사이에 야기되는 외디프스 갈등과 관련되어서 가장 강하게 대두된다고 보고있다. 초자아는 이드(id)와 유사하여 그 대부분이 원시적이며 무의식적이다. 프로이드가 지적하였듯이, 이드(id)와 초자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공통점이란 이드(id)와 초자아는 모두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드는 유전적 영향의 소산이며 초자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의 소산임을 의미한다.

프로이드는 초자아(super ego)를 두 개의 하위체계, 즉 양심(consciousness)과 자기이상(ego ideal)의로 나누었다. 양심은 부모의 처벌을 통해서 얻어지며 이는 부모가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 때문에 어린이가 야단맞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초자아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이나, 도덕적 억압, 그리고 개인이 이상하는 바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죄의식 등을 포함한다. 부모가 아동을 인정하여주고 보상해 줄때 자아이상이

생긴다. 자아 이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와 포부를 갖게 해주며 그가 이것을 달성한다면 자존심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프로이드의 초자아 개념에는 사회적 측면의 所在와 그 중요성의 인정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도덕적 관념과 관련된 측면이 더욱 부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역은 암시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뿐이지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다.

5. 경제적 차원(The Economic Dimension)

프로이드 성격 이론에서의 경제적 차원이란 내적인 양(internal quantity)과 에너지의 전이 현상을 취급하는 양적인 차원을 말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 행위란 심리적 에너지에 의해 조정되어 진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는 인간의 불안정이란 내부 균형의 파괴, 즉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 등의 대립 세력들 사이에 심리적 에너지의 불균형이 야기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프로이드는 캐논(Cannon, W.)이 언급한 “항상성”(homeostasis)의 개념¹⁸⁾, 즉 유기체의 균형상태 유지에의 성향을 설명한 개념과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일반 체제론적 개념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II. 프로이드의 정신요법 : 정신분석

현재 우리가 심리요법이라고 부르는 많은 접근 방법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비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방법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고 또한 많은 변형이 가해졌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방법은 지금도 대부분의 정신 치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프로이드에 의하여 사용된 몇 가지 주요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연상(free association)은 정신분석적 심리요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자유연상법은 환자에게 아무런 하찮고 부적합하게 보이더라도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이야기 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억압된 기억과 기타 무의식적인 것들을 표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꿈의 분석(dream-analysis)은 환자의 무의식에 접근하려는 또 다른 심리요법이다.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에 이르는 王道”라고 하였다. 모든 꿈은 항상 아주 특이한 무의식 체계의

18) Walter B. Cannon, *The Wisdom of the Body* (New York: Norton, 1939.)

산물이고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숨겨진 욕구와 갈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석(interpretation)은 치료자가 특히 정신유전적 측면에서 환자의 사고, 감정, 태도등을 분석하여 정신역동적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치료 방법이다.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의 개발에 있다.

프로이드 심리요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은 “저항”(resistance)과 “감정전이”(transference)라는 개념이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의 변화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것을 현상유지하려는 성격구조내의 세력들을 말한다. 프로이드 심리요법이란 환자를 이해시켜 결국 저항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자들에게 돌리는 감정, 사고, 공포, 소망 등을 말한다. 이와같은 것들은 특히 과거의 다른 관계에서 경험된 불합리한 요소들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심리요법에 있어서 환자의 감정전이적 반응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왜곡된 감정전이적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신경증을 야기시키는 갈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분석심리학 및 자아심리학 이론의 개별사회사업 실천적 적용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은 다른 어떤 이론들 보다도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물론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프로이드의 개념이 개별사회사업가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기도 하고(예를 들어, 1920~30년대 미국의 경우 많은 개별사회사업가들은 프로이드의 개념을 사회사업실무에 적용시켰다) 혹은 거부 당하기도 하였지만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이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영향을 미친 프로이드 성격이론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은 개별사회사업가들로 하여금 각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체계는 개별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와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만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프로이드의 개념을 통하여 개별사회사업가들은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발달역사, 정신적 구조 및 역동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개별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의 내재적 세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문제상

황을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프로이드의 “저항”(resistance)과 “방어”(defense)라는 개념은 개별사회사업가들로 하여금 무의식(unconsciousness)이야말로 클라이언트 자신의 행동수정 노력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었다. 실제로, 불합리한 죄의식(superego resistance) 때문에 사회심리적 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는 클라이언트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유아적 소원과 지속적인 충족추구(id resistance)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수정이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들도 있다. 그 이외에도 성숙한 사회기능에 필요한 자기 주장이나 자발적 행동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클라이언트도 찾아볼 수 있다(ego resistance). 이와같이 개별사회사업가들은 클라이언트가 시도하려는 변화 노력이 흔히 좌절되는 이유를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개념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무의식 자체가 인간의 태도 및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진단과정에서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은 매우 금물이며, 항상 현실적인 관점(realistic perspective)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개별사회사업가에게 인식시켜주었다.

셋째, 개별사회사업가들은 프로이드의 “감정전이”(transference)라는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개별사회사업의 치료적 개입과정에서 야기되는 현상을 보다 적절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하밀톤(Hamilton, G)은 감정전이란 “특히 과거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경험이 현재의 치료자에게 변위상태로 이월된 불합리한 요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⁹⁾ 홀리스(Hollis, F.)는 하밀톤의 정의를 조금더 확대시켜서 감정전이란 “사회사업가를 클라이언트 자신의 어린시절 가족인물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해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성격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왜곡된 대인관계 반응”이며 “이와같은 비현실적 모든 반응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따뜻한 혹은 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성격의 본능, 자아, 혹은 초자아를 대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⁰⁾

감정전이란 저항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사람에게서는 과거의 기억을 知的으로나 情的으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생활경험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작용을 하게 마련이며, 또한 새로운 경험을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들어, 부모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으며 제멋대로 성장하고 또한 매우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는 사회사업가와의 관계에서도 사회사업가가 자신의 부모처럼 태도를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 남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착취당한 경험을 수차 경험한 클라이언트는 남자 사회사업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녀가 과거에 관계하였던 모든 남자들과 같은 형태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많다.

19) Gordon Hamilton,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Casework*,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p. 256.

20) Florence Hollis, *Casework: A Psychosocial Therapy* (New York: Random House, 1964), p. 154.

그런데 감정전이에 대한 개별사회사업의 접근방법은 정신분석의 접근방법과 상이하다. 정신분석에서는 감정전이의 상태가 전이신경증(transference neurosis)이 될 정도까지 전개되어 지도록 조장되어 진다. 그러나 개별사회사업의 중심적 치료과정은 클라이언트의 무의식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퇴행(regression)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키거나 전이신경증이 될 정도까지 심한 전이반응을 조장시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사업가에 대한 감정전이(특히 긍정적 감정전이)는 어느 한도내에서 장려되기도 하지만, 개별사회사업가는 감정전이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있게 해석(interpretation)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별사회사업가는 최소한 감정전이의 의미성을 이해하고는 있어야 하며 치료계획은 반드시 그와같은 점이 고려되어진 이후에 수립되어져야 한다. 예를들어, 위에서 언급된 첫번째 클라이언트의 경우, 만일 개별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감정전이를 감지했다면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가져보지 못하였던 긍정적 의미에서의 좌절경험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두번째 예에서 언급된 클라이언트의 경우, 만일 개별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전이를 감지했다면 과거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져보지 못하였던 “교정적 정서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을 클라이언트가 체험할 수 있도록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같이 만일 개별사회사업가가 감정전이를 적절히 감지하고 있을 경우 그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감정전이에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자칫 잘못하면 감정전이가 誤用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간혹 클라이언트의 현실적인 반응을 부정적 감정전이로 낙인(labeling)찍을 가능성에 대하여 개별사회사업가는 항상 유의해야 된다. 사회사업가나 사회사업기관 자체에 대하여 저항감이나 반감을 가질만한 타당한 이유가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히 감정전이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전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상황과 실재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감정전이와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서 “역감정전이”(counter-transference)라는 개념이 있다. 역감정전이 역시 감정전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사업실무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역감정전이란 감정전이의 반대현상이며 개별사회사업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현실적인 감정반응을 의미한다. 개별사회사업가로부터의 역감정전이 반응이 클라이언트의 진단과 치료과정에 있어서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역감정전이 반응상태가 개별사회사업가 자신에게 감지되고 또한 그것을 치료적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만일 개별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신의 감정반응을 인지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그와같은 감정적 반응을 야기시킨 클라이언트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을 경우 개별사회사업가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별사회사업가로

부터의 짐작(hunches) 혹은 직관적반응(intuitive response) 등은 역감정전이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짐작, 직관등은 그 자체만으로 효과적일 수가 없으며 다만 그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때 비로서 활용의 가치가 생기게 된다.

네째, 프로이드 성격이론의 개별사회사업 실천면에 대한 또 하나의 커다란 공헌은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부모들은 흔히 자신의 과거 아동기의 경험과 태도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준데 있다.

다섯째, 프로이드의 “치료적 통찰력” 및 “동기”라는 개념이 개별사회사업 교육에 공헌을 하였는데 이와같은 개념들은 학교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 “自己知覺”(self-awareness)의 개발방법과 학습증진을 위한 교수—학생간의 관계개발에 활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프로이드의 이론이 개별사회사업 실무 및 교육에 미친 몇가지 주요한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프로이드의 이론에도 제한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적 토대만으로는 개별사회사업의 치료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외의 이론들도 보충되어야 할 때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인간—상황적”(person-in-situation) 입장에서 파악하고 치료하려는 개별사회사업가에게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한계성을 제시하게 된다.

프로이드의 성격이론 이외에 개별사회사업이론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서 自我心理學의 성격이론을 들을 수 있다. 자아심리학은 개별사회사업가가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포섭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자아(ego)를 검토, 평가 함으로써 사회사업가는 성격의 통합적 전체와 갈등의 처리기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내적자원 및 그가 지니고 있는 성격의 취약점을 파악하게끔 한다.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영향을 미친 자아심리학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매우 관련성이 있는 자아심리학의 개념들 중 “사회적 순응”(social compliance)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인간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인간 유기체와 그의 환경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같은 견해는 개별사회사업가가 “인간—상황적” 견지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검토하고, 진단, 치료하는 입장과 합치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자아심리학의 개념은 개별사회사업가들이 오래전 부터 주장하여 왔던 인간의 변화는 환경적 변화를 초래하고, 환경의 변화는 인간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아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능가하는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아심리학의 이론은 본능, 자아 및 초자아간의 대립된 역동성에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항상 인간주위의 폭넓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감안해야 비로서 인간성격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만 치중하여 클라이언트의

내적 문제상황만을 진단한다면 그의 중요한 환경적 요소들을 무시할 경향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자아심리학 이론은 아동과 그의 가족들의 복지 서비스 영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아심리학의 이론을 통하여 부모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녀들의 영향 또한 받는다는 점을 개별사회사업가는 재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어느 한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개입노력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가 가족 성원들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각 성원은 특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모든 가족 성원들의 환경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순응”이라는 개념외에 자아의 “일차적 자율 자아기능”(primary autonomous ego function)과 “이차적 자율 자아기능(secondary autonomous ego function)이라는 개념도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와같은 개념들을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적용시킴으로써, 첫째, 클라이언트의 자아기능, 예를 들어, 기억, 좌절처리, 인내,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의 자아기능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의 적응성 정도 여부를 좀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개별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을 야기시킨 개인적 요소들과 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자아기능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층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들어, 자아심리학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학교사회사업가는 “학교공포증”(school phobia)이란 아동의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이라는 심리적 요소 이외에, 그 아동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교사, 그리고 기타 학교 환경들이 아동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자아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개별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차별적 치료모형”(differential treatment modality)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예를들어, 어떤 클라이언트는 자아기능이 극도로 허약하여 집중적 치료관계(예, 의식의 내용을 그 요소와 속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內觀的 치료관계)형성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기치료라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자아심리학의 일차적, 이차적 자아 자율기능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환경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력은 미칠 것인가에 관한 진단적 평가를 함으로서 장기치료가 가능한(혹은 적절한) 클라이언트와 단기치료로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분별할 수가 있다. 또한 이와같은 진단평가는 어떤 경우에 가족치료 혹은 집단치료 등이 요구되어지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지침역할을 하기도 한다. 셋째, 성격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의 정돈성, 정확성, 호기심 등과 같은 성격적 특성들이 인간의 이차적 자율성일 가망성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회사업가는 그와같은 성격적 경향을 치료과정중 구배여 노출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성격적 특성들이란 脫 갈등적(conflict-free)이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그런 갈등없는 성격부분은 개별사회사업

가와 클라이언트의 협조동맹관계를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문제와 그의 부적응적 상황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자아심리학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몇가지 주요개념들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사업 실무 및 교육에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 및 생활환경의 병리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러한 각도에서 개별사회사업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평가 및 결론

정신분석학이 개별사회사업에 미친 영향은 다른 어느 이론들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많은 개념들이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가치가 있음이 실제 입증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신분석학은 개별사회사업 치료과정(조사, 진단, 개입)의 조직화와 논리적 근거제시를 위한 유용한 준거틀을 마련하여 주었다.

물론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성격이론 및 치료적 기술로서의 정신분석학은 일종의 과학(science)으로서 취급되어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²¹⁾ 정신분석학의 몇가지 가정들과 개념들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음이 증명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학의 기준에 의하면 정신분석학이 과학으로서 수용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있다. 굳이 평가한다면, 정신분석학을 일종의 原形的 과학(proto scienc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은 인간의 성격과 마음의 기능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제시하여 주었고, 특히 개별사회사업의 실무에 매우 유용한 준거틀을 제공하여 주었다.

개별사회사업의 발달역사를 고찰하여 볼 경우, 개별사회사업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로부터 다양한 개념과 이론들을 借用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런 까닭에 개별사회사업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론을 정립시키고 있지 못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다양성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여러가지 기법들을 개발하도록 하는 유리한 입장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사회사업가들에게는 학문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실무적인 필요성 때문에 적절한 지적(知的) 지식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활동하기 위하여 개별사회사업가는 “성격이론”, “소집단 이론”, “역할이론”, “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 등 여러가지 이론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

21) Hans J. Eysenck, *The Effects of Psychotherapy* (New York: International Science Press, 1966.); Robert R. Sears, *Survey of Objective Studies of Psychoanalytic Concepts*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42)

미에서 볼 때 과거 많은 개별사회사업가들이 정신분석 이론과 치료기법들을 마치 “dogma”인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태도는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비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개념과 치료기법들이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매우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dogma”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의존할 경우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개별사회사업가가 프로이드의 개념을 마치 “dogma”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클라이언트 치료과정에 적용할 것을 고집할 경우 개별사회사업가는 ‘편협성’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둘째, 마치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처럼 프로이드의 이론에만 의존할 경우 개별사회사업가는 자기자신을 스스로 정신의학의 보조자로 전락시켜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간혹 일부의 개별사회사업가들은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적이면서도 비교적 제한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입장은 개별사회사업 실무자나 사회사업기관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정신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정신치료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정신분석학에만의 절대적 의료성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성이 검토되었는데,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또 한가지가 있다. 프로이드의 개념들이 지나칠 정도로 일반화되어 그것들이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무차별적으로 쉽게 적용되어지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경향은 가능한한 배제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심리역동적 문제가 개별사회사업가(혹은 학생)에 의하여 적절하게 파악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자체가 그럴듯하게 진단되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프로이드의 단편적인 이론적 용어들——예를 들어, 거세복합(castration complex), 母性拒否(maternal rejection), 親母갈등(oedipal conflict)——이 쉽게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경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토울(Towle, C.)은 많은 개별사회사업가들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성의 부족때문에 정신분석 이론이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잘못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²⁾ 정신분석의 개념들을 필요에 따라서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만일 적용시키려 할 경우 그 이론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문제점들 이외에 일반적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개별사회사업 실무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지적되는 가장 주요한 제한성은 정신분석학이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에 별다른 쫓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일 어느 한 클라이언트가 파피적인 객관적 현실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관적 현실에만 관심을 둘 경

22) Charlotte Towle, *The Learner in Education for the Professions*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1954), pp. 108-109.

우 그것은 전문가적인 무책임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별사회사업은 “환경적 조작”(environmental manipulation)에 관하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치료(social therapy)의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흔히 환경적 조작이란 충분한 사회사업 훈련을 받지 못한 개별사회사업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접근방법 내지 매우 수월한 작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같은 인식은 매우 그릇된 것이다. 실제적인 실무경험을 통하여 볼 때, 환경조작이라는 것은 개별사회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것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선 개별사회사업가가 환경에 직접 뛰어 들어가야 하며, 또한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역동성을 예리하게 관찰, 진단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 많은 사회사업가들간에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최선의 관점(perspective)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열띤 논의가 있었다. 특히 양자택일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상황적 사회사업가(situational worker), 사회적 활동가(social activist), 혹은 개혁자(reformer)가 되는 것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임상적 치료자(clinician)로서의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선의 역할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개별사회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자택일적이라기 보다는 양자합일적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 각 개별사회사업가들은 양면 요소들을 통합하여 “상황주의자”(situationalist)이자 동시에 “임상가”(clinician)가 되어야 한다. 상황적 접근방법, 예를들어, 위기지향적 접근방법(crisis-oriented approach)만을 강조한 나머지 위기상황속에 처해있는 사람(person) 자체를 망각하고, 그의 독특하면서도 주관적인 욕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다. 바람직한 전문적 개별사회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상황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어 진다.

Reference

- Bowlby, John.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2.
- Brenner, Charles. *An 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 New York: Doubleday, 1955.
- Cannon, Walter B. *The Wisdom of the Body*. New York: Norton, 1939.
- Eysenck, Hans J. *The Effects of Psychotherapy*. New York: International Science Press, 1966
- Freud, Anna.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London: Hogarth Press, 1937.
- Freud, Sigmun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Standard Edition, Vol. 18.
-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Standard Edition, Vol. 23.
- Gramlich, Francis W. “On the Structure of Psychoanalysis,” In *Psychoanalysis, Scientific Method, and Philosophy*, Sidney Hook (ed.)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9.

- Hall, Calvin S. and Gardner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 Hamilton, Gordon.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Casework*.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 Hartmann, Heinz.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8.
- Hjelle, Larry A. and Daniel J. Ziegler. *Personality Theories*.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1981.
- Hollis, Florence. *Casework: A Psychosocial Therapy*. New York: Random House, 1964.
- Leitch, M. and S.K. Escalona. "The Reaction of Infants to Stress: A Report on Clinical Findings," I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s. III-IV,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49.
- Mithelamn, Bela. "Motility in Infants, Children and Adult: Patterning and Psychodynamics," I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 IX,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4.
- Munroe, Ruth. *Schools of Psychoanalytic Thought*. New York: Holt, 1955.
- Rapaport, David. "The Structure of Psychoanalytic Theory: A Systematizing Attempt," In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Sigmund Koch (ed.), Vol. 3, New York: McGraw Hill, 1959.
- Sears, Robert R. *Survey of Objective Studies of Psychoanalytic Concepts*.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42.
- Towle, Charlotte. *The Learner in Education for the Professions*.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1954.